

BBK 김경준씨 광은창투 384억 횡령 전말

우회상장 통로 이용 위해 인수 유령회사 투자로 자금 빼돌려

BBK 김경준씨는 광은창투를 자신의 재기를 위한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했다. 김씨는 광은창투를 인수한 이후에는 유령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때도 일명 '포이즌필(Poison Pill)'이란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켜 대표이사 타외에 의해 물러날 경우 50억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김경준씨

또 2001년 11월부터 2개월동안에는 회사의 전체 투자대금 211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실제를 알수없는 벤처회사 3곳에 투자했다. 김씨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주당 최고 300만원에 사들여 유령회사 투자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다섯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600억원을 모은 후에는 지분의 40%를 고가에 매각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큐베이터 역할을 토포해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지분 34.3%(132만주)를 보유한 광은창투의 부실로 인해 2000년 4천418억원의 공격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측이 자회사의 조기매각을 요구하게 됐다. 광은창투는 이에따라 2000년 5월 광은창투를 뉴비전벤처캐피탈로 바꾸고 매수자 찾기에 나서는데 한관, 또 다른 자회사 광은과 이낸스를 해산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BBK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경준씨와 접촉하게 되고 김씨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인 김희연씨를 내세워 2001년 2월 광은창투와 뉴비전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광은창투는 이어 3월 5일 뉴비전벤처캐피탈의 주식 38만4천주를 주당 7천400원에, 5월 3일에는 38만4천주를 주당 6천600원에 김씨측에 매각해 전체 지분의 58.2%를 53억9천904만원에 넘겼다.

이어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18만주를 3천240원, 10만주를 1천410원, 27만2천주를 1천33원에 장내에서 매각하는 등 나머지 지분을 10억5171만원에 처분했다.

결국 광은창투는 설립당시 투자금액 66억원(주당 5천원, 132만주)보다 5천744만원 손해를 보고 회사를 판 셈이다.

광은창투 관계자는 "김씨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모색하다 조기매각 상황에 처한 광은창투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횡으로 상장폐지=김씨는 회사를 인수한후 읍서널벤처스코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보기도 큰 전횡을 휘둘렀다.

2001년 6월 광은창투는 2대 주주로 있을

과정을 통해 모두 384억원의 읍서널벤처스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

유령회사 투자와 경영권 횡령 등으로 결국 읍서널벤처스코리아는 2002년 7월 31일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김씨와의 악연을 끝내게 됐다.

이후 증권사 출신인 장모씨가 퇴출 직전 정리매매를 통해 주당 300원대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읍서널벤처캐피탈로 이름을 바꿔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투·융자 및 유가증권 인수 및 매매 전문 회사로 탈바꿈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우리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박영선·송영길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서 제기 "국정조사·특검 도입해 진실 규명해야" 추측 "이명박 죽이기 야비한 정치 공작"

열린우리당 박영선 송영길 의원은 1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원래 정관에는 김씨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일 김씨가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송영길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LKe뱅크 계좌 내역 사본을 공개하면서 "LKe뱅크는 이 전

관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은 공중된 문서"라며 "원래 정관에는 김씨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일 김씨가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송영길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LKe뱅크 계좌 내역 사본을 공개하면서 "LKe뱅크는 이 전

박영선-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공방

Table with 2 columns: 박영선 의원 주장, 이명박 전 시장측 반박. Content includes details of the legal dispute over stock manipulation.

송 의원은 특히 "정관에는 법무법인 중앙의 공인인증이 있어 조작되지 않았으며 정관 변경은 김경준씨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정관에는 법무법인 중앙의 공인인증이 있어 조작되지 않았으며 정관 변경은 김경준씨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전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는 횡령에만 초점을 맞춘 부실조사였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BBK사건의 주가조작 규모와 주주의 피해규모, BBK와 이명박 전 시장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장광근 공동대변인은 "이명박 죽이기" 플랜인 듯 싶다"며 "면책특권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야비한 공작을 하게 하는 박 의원의 배후는 누구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뒤 김원기 전 의장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격려의 악수를 받고 있다.

"창피한줄 알아" "조용하고 들어" BBK 투자사 이명박씨 재산 가압류

'주가조작 의혹' 제기엔 난장판 된 국회

2001년 35억여원 청구...법원서 받아들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읍서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소란이 벌어졌다.

먼저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총대를 댔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각종 도표 및 사진자료를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며 이 전 시장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과 가까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영선 의원의 질의시간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신공격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우리당 일부 의

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들어오라"고 소리치면서 양당 의원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창피한 줄 알아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이병석 의원), "별도 기자회견을 해라"(김희정 의원), "다 나가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느냐"(박순자 의원)는 고성어 터져나왔고, 우리당에선 "과잉충성하지 마세요"(정청래 의원), "조용히 하고 들어"(선병렬 의원)라며 응수했다.

다만 이날 검증 공방에서 이 전 시장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측 주요 의원들은 항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연관설을 부인하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BBK에 투자했던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업체 ㈜신탭은 2001년 10월11일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여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신탭은 "BBK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의 '사실상 운영자'를 김경준 읍서널벤처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하 바 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다음날 "투자 계약 당시 채무자(이 전 시장)로부터 서명화 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 채무자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 등을 소명해 오라"고 신탭 측에 보정명령을 보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보낸 지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신탭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시장이 BBK의 채무를 연대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신탭은 2002년 1월 김 전 대표가 35억원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였다.

Very Good Tour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packages, including prices for 1, 2, and 3-day trips.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featuring packages like 'Jeju 4-day 3-night' and 'Jeju 5-day 4-night' with prices.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featuring packages like 'Jeju 4-day 3-night' and 'Jeju 5-day 4-night' with prices.

Large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listing various tour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ravel advertisement for Cambodia, featuring packages like 'Cambodia 5-day 4-night' and 'Cambodia 4-day 3-night' with prices.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featuring packages like 'Jeju 4-day 3-night' and 'Jeju 5-day 4-night' with prices.